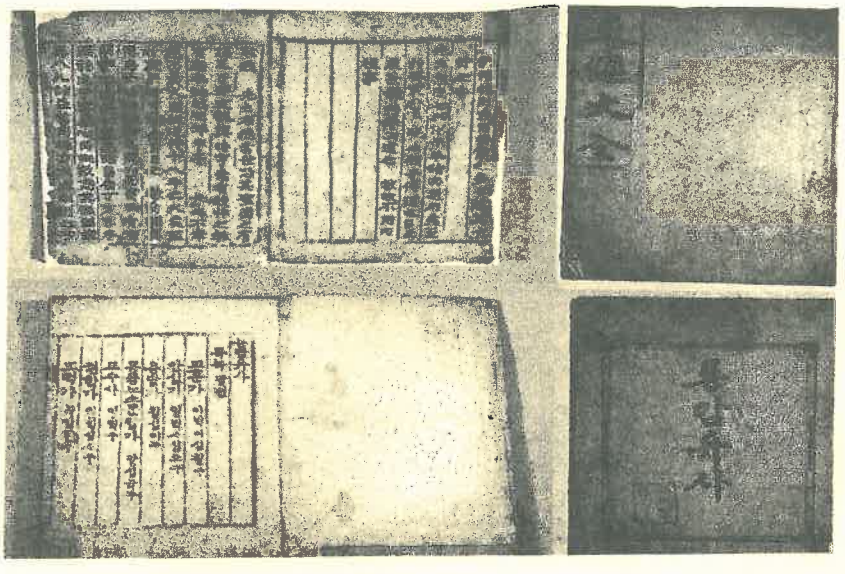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108주년 기념

· 동학혁명기념관 개관7주년 기념식
· 동학사상 강연회



- 일시 : 2002년(포덕 143년) 6월 9일 오전11시
- 장소 : 동학혁명기념관
- 주최 : 동학혁명기념관, 21세기 동학연구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 후원 : 전라북도, 천도교 전주교구

동 학 혁 명 기 념 관

560-030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76-2 동학혁명기념관 T. 231-3219(팩스겸용)

- 기념관주소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76-2(풍남동 은행나무)
- 전 화 번 호 : 0652 - 231 -3219
- 기념관사용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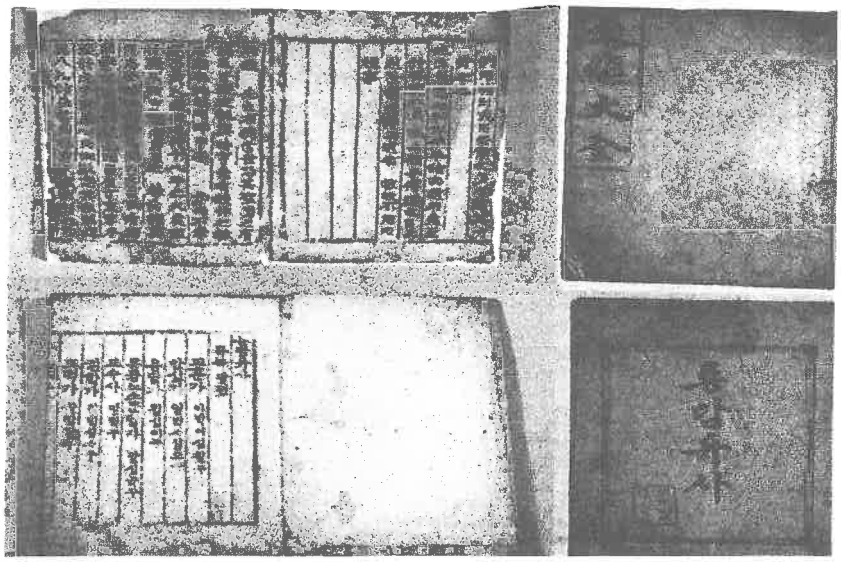
  1 각 사회단체 및 학교등 2층 상설전시설 무료 개방

  2 각 사회단체 및 학술단체등 1층 강당 유료 대여

  3 동학 · 천도교에 대한 전화문의 및 방문 상담

동학혁명군 전주입성 108주년 기념

· 동학혁명기념관 개관7주년 기념식
· 동학사상 강연회



- 일시 : 2002년(포덕 143년) 6월 9일 오전11시
- 장소 : 동학혁명기념관
- 주최 : 동학혁명기념관, 21세기 동학연구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 후원 : 전라북도, 천도교 전주교구

동 학 혁 명 기 념 관

560-030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76-2 동학혁명기념관 T. 231-3219(팩스겸용)

차　　례

식　순 3

기념사 4

축　사 5

강　연 7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24

동학행진곡 25

1부.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7주년 기념식

▸개　　식
▸청 수 봉 전
▸심　　고
▸주문3회 병송
▸내 빈 소 개
▸기 념 사
▸축　　사
▸동학 행진곡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낭독
▸심　　고
▸폐　　식

2부. 동학사상 강연회

▸강사소개 및 취지설명
▸강　　연
- 제 목 : 동학사상의 정치·사회적 성격
- 강 사 : 우윤(전주역사 박물관장)

3부. 동학혁명 유적지 답사

동학혁명기념관(버스탑승)
전주덕진공원(김개남 소화중장군 추모비, 전봉준장군동상)
전주역사 박물관(동학관련 자료전시)
전주 완산칠봉(동학농민군 전주 입성기념비)
※점심식사(도시락)

포덕 143년 6월 9일
천도교중앙총부
교령 김 철

오늘은 이곳 전주에 동학혁명기념관을 건립한지 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동학혁명군이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기치를 들고 전주성을 무혈입성한 날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동학혁명 기념관 개관 7주년을 전주시민 그리고 동덕 여러분과 더불어 기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하여 마지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은 108년이 지났지만 그 혁명의 뜻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학혁명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혁명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동학혁명의 참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개벽사상을 선양하는 것을 단순한 기념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주적 참뜻이 확립되지 못한 우리 사회를 108년전 그 정신으로 개벽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고하건대 108년전 3월 21일 백산에서 기포한 동학혁명은 황토현과 장성 황룡촌에서 대승한 후 그 여세를 이어 바로 오늘 (5월 31일) 호남지역의 수부인 전주성을 무혈로 입성, 동학혁명의 통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신분철폐, 지벌타파, 기회균등한 인재등용 등 폐정개혁을 실천하였습니다. 즉, 동학혁명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신앙과 인간의 존엄성을 극대화한 진정한 신인간 창조운동, 그리고 시천주 신앙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옮기는 것으로써,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통한 사회화 민중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학의 개벽운동은 동학혁명에서 기미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과 8·15광복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신은 정부수립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세계 최후의 민족분단 국가로서 남북의 이념적 동질성회복의 핵심이요 민족내부의 유일한 자주적 정신자산이 동학정신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남북간의 7천만 겨레는 이제야 말로 동학혁명과 3·1정신의 참뜻을 되살려 그 정신 속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은 불문가지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념 행사도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통일정신의 주축이 되고 세계평화의 실마리가 되는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호남지역 시민 여러분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동학의 인내천 사상을 적극적으로 선양해 주시기를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동학혁명 기념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중의 힘! 혁명, 그 아름다운 이름...

국새천년민주당 회의원
장 영 달

자유와 민주화,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을 사랑하시는 전북도민 여러분!
불합리와 모순에 당당히 맞섰던 민초들의 선각자인 녹두장군의 후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달 입니다.

동학혁명은 5천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근대적 민주화의 싹을 틔운 민중운동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근대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마침내 이 땅에 민주화의 꽃을 피게 한 씨앗이 되었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진리와 자유, 그리고 박애의 영원성을 증명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압과 가난, 불평등과 착취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민주적 이념을 품은 동학혁명이 세계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할 만큼 뒤틀린 과거 독재 정권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과거 위정자들과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의해 왜곡된 지난 역사를 바로 잡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0세기의 마지막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쾌거를 이룩했으며, 동학혁명 이후의 근·현대사에서의 자유와 민주화 운동은 비로소 제 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정신을 계승한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는 개혁의 기치아래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새천년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선출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인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선 방식은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이고, 민의를 정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지난 50년 현대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정치개혁의 대표적 성과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정의와 진보의 역사는 이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적 과제와 국민적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소유한 녹두장군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서민편에 서서 민의를 반영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정신적 기초위에 일어났던 동학혁명. 이러한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건립된 '동학혁명기념관'의 일곱 번째 개관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아직도 그 의미를 찾지 못했을 '동학혁명정신'이 '동학혁명기념관'이라는 훌륭한 공간안에서 역사에 큰 교훈으로 남을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동학혁명기념관'은 동학혁명의 역사적 대의를 바르게 세우고, 자유주의 정신의 상징적 의미로서 우리 역사의 위대한 역량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대명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동학혁명기념관 개관7주년 기념행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당당하고 의미있게 치러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7주년을 축하하며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정 동 영

벌써 동학혁명군이 우리 고향에서 뜻 깊은 승리를 거둔 지도 100년 하고도 십년 가까운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동학혁명군이 무혈입성한 우리 전주에 뜻 깊은 동학혁명기념관을 세워 그 뜻을 널리 기리게 된 것에 대해 함께 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갑오년의 동학혁명은 조선왕조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중을 도탄에서 구하고 외세를 배제하고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려는 역사적 혁명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일어난 동학혁명군은 제폭구민·보국안민·척양척왜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고부를 휩쓸고 태인·부안을 거쳐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그 여세를 몰아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섬멸하는 대승을 거두웠습니다.

황룡촌 전투의 승리는 바로 관군의 아성이던 전주성을 무혈점령하게 하였고 전주화약을 맺고 12개조 폐정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집강소를 호남 53개 군현에 설치함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민회 민주정치와 지방자치의 시범을 보여주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 혁명은 좌절된 것처럼도 보였으나 동학혁명의 정신은 10년 후 개화혁신운동과 3·1독립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건국이념으로 승화되어 지금도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고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2의 동학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문익환 목사께서는 살아생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딪치기 전에 통일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십년 동안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년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우리 국민의 정부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화해와 협력 관계를 급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압제와 속박을 뚫고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혁명의 정신이 이제 남북 통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도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차원의 민족 통일 이념을 정립해 나가야만 평화적인 조국통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동학혁명기념관 개관 기념식과 동학사상강연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디 동학혁명기념관이 유구히 흐르는 역사의 숨결을 함께 하는 큰 바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사상의 정치·사회적 성격

우 윤
(전주역사박물관장)

1. 머릿말

개항을 맞이하기까지 조선 사회는 내부적으로 해체과정에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격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의 정치는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더구나 서구 자본주의 세력이 이웃 중국에까지 진출한 상황에서 조선의 지배계급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곤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과 통상을 거절하는 쇄국정책과, 이념적으로 더욱 보수화된 척사위정의 논리를 강력하게 내세울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이념적 보수화와는 달리는 내부의 모순은 격화되고 농민항쟁, '변란', '화적' 등의 저항을 통해 폭발되었다. 이때 동학이 수운 최제우(崔濟愚: 1824~1864년)에 의해 창도되어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종교 및 사회사상으로 제시되었다.

이 글은 당시 사회적·사상적 토양 속에서 동학 창도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 특히 동학의 사상적 연원을 살펴 동학이 당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음 이런 동학사상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동학 창립의 사회적·사상적 배경

1) 사회적 상황

조선사회는 후기로 오면서 생산력 증대와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점차 해체과정에 직면하였다. 여기에 부세운영의 문란과 군사력·치안의 공백까지 겹쳐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 이에 따라 통치기강은 날로 해이해졌고, 농촌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농민항쟁과 변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와해되어 가고 있던 체제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

조선 사회는 이러한 내적 도전뿐만 아니라 외적 충격에까지 노출되어 체제의 붕괴는 점차 가속화되었다. 자본주의 상품은 19세기 중엽부터 벌써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하여 침투해 있었다. 그리하여 서울장안의 시장과 지방 장터에는 버젓이 외국상품들이 공개리에 판매되고 있었다.

여기에 전염병의 만연이라는 자연적 재해까지 겹쳐 농촌인구를 앗아감으로써 사회적 위기 의식을 부채질하였다. 1821년과 1822년의 콜레라는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고, 1859년 9월말(양력)에는 서울에 콜레라가 침입하여 많은 사람

이러한 자연 재해로 조선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을 무렵 국제정세 또한 심각하게 돌아갔다. 중국은 1839~41년 아편전쟁을 겪고 1842년 남경조약을 맺은 이후 동아시아권에서 누려왔던 오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1850년 이른바 태평천국의 난으로 내란상태까지 맞게 되어 현저히 힘이 약화되는 듯싶더니 끝내는 1860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고 황제가 피난가는 치욕을 맛보았다. 이로써 중국은 북경조약을 강제로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 서양제국의 힘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종주국으로 군림해왔던 중국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침략과 내란의 소용돌이는 당시 조선인의 눈에는 하나의 경악이었고, 곧 이어 조선에도 닥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서 당시 조선인은 크게 동요하였다.

이런 상황은 당시 조선에 거주한 외국인의 기록에 잘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번진 엄청난 공포와 심각한 경악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모든 일이 중단 되었고 부자나 넉넉한 집안들은 산골로 도망하였는데 제일 먼저 피신한 사람 중의 하나는 위에 말한 의견서를 만든 사람이었으니,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안전하게 하려고 관직을 사임하였다. 대신들은 그들의 부서를 감히 떠나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와 보물들을 서둘러 떠나보냈다.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이 信者들에게 겸손되이 보호를 부탁하고 위험의 날에 대비하여 종교서적이나 苦像이나 聖牌를 장만하려는 교섭을 벌였다. 어떤 관리들은 공공연하게 천주교의 이 표지들을 허리에 차고 다니기까지 하였다. 포졸들은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각기 천주교인들에게 대한 수색에 조금이라도 협력한 것과 그들에게 가한 고문을 변명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었고, 조선인들은 여기에 대응할 방안을 각자의 정치의식과 사회적·경제적 기반에 따라 찾아야 했다.

2) 사상적 상황

조선의 성리학(性理學)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상하 차별적 신분제로 귀착시켰으며, 또 그 상하 차별적 신분제를 원리적으로 합리화·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성리학은 관료제와 신분제를 매개로 하여 봉건경제체제를 유지케 하는 고도로 세련된 지배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회적 변동기에 직면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성리학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유지 논리를 제시하여야 했으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또 양요가 자주 일어난 19세기 중엽에는 중앙의 관료들마저 극복 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자 재야의 보수유생 중 일부에서 척사위정론을 부르짖어 위기에 몰린 체제를 부여잡으려 하였다. 이중 대표적으로 華西 李恒老(1792~1868년)는 춘추대의의 大一統을 주장하면서 '闢異端崇正學'을 앞세운 '正'과 '邪'의 二元的 세

계관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 했으나 현실적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전통 체제의 유지·강화라는 공허한 논리를 펴는데 머물고 말았다.

이렇게 지배계급 안에서 사상적 대안이 여러 갈래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사회로의 전망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자 기층 대중 사이에는 異端思想, 이른바 민중사상이 나타나 사회 저변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정감록적 도참사상이 19세기로 오면서 도시와 시골 구석구석까지 더욱 더 파고들어갔다. "궁중의 과부가 자기 뜻대로 하고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 나라 일은 장차 어긋난다", "조선왕조가 곧 멸망하고 정씨왕조가 들어선다", "정씨왕조의 우두머리인 정진인(鄭眞人, 혹은 정도령)이 해도(海島)에서 군사를 길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러 나온다", "몸을 보존할 땅이 열 군데(十勝地) 있다", "십승지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살고 부자는 죽는다"고 하는 정감록의 주장은 당시 정치현실을 잘 드러낸 것이었고, 따라서 정감록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그럴듯한 것으로 보였다. "이는 또한 새로운 사회변혁을 암시하여 지배층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심을 선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민중심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1)]

또 일반 기층 대중들은 삼국시대부터 전해오는 미륵신앙에서 예언하는 미륵출현에 한가닥 기대를 걸기도 하였다. 그러한 믿음은 당시 고통스런 생활을 영위하던 기층 대중의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좀더 나은 사회를 바라게 하였다.

또 기층 대중 사이에는 後天開闢說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일상생활에서 오전 오후가 번갈아 오듯이 세상에도 先天과 後天이 서로 순환하는 데, 지금의 운수는 신분이 높고 부패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였다. 후천이 오면 병도 없어지고 관리들의 수탈마저도 사라져 무지렁이가 오히려 권세와 힘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仙境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사상은 19세기 이전까지는 제각기 민중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들의 고달픈 심정을 어루만져주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이런 민중사상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격화되는 19세기 초·중엽으로 오면서 사회 변혁세력의 '변란'에 활용되면서 지배계급의 성리학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은 실현불가능한 내용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도 하였지만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기층 대중과 친화력을 높여갔다

이러한 민중사상의 전파와 병행하여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 역시 당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19세기 초에 여러 차례 사옥을 통하여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계속 조선사회에 침투하여 신도수를 늘려나가 1850년대 말과 1860년대 초에는 상당한 신도들을 각 계층 속에 확보하였다. 이 같은 신도의 증가 추세는 천주교에 대한 당시 조정의 대책 없는 방임자세와 관련이 있었고, 천주교 신부들이 주요 도시에 세운 施藥所에서 제공하는 시혜행위에 기

---

1) 성대경, 1984, <대원군정권성격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8쪽.

층대중들이 끌린 탓이었다.

조선의 기층 대중은 이러한 사회적 변동과 여러 갈래의 사상적 대안들 속에서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나름대로의 방안이라 생각되면 일단 매달려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 불투명한 내일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

3. 동학의 창도와 동학경전

위와 같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층 대중이나 지식인은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수운 최제우의 동학 창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학 창립에는 일정한 역사의식이 담지되어 있었다.

1) 동학의 창립

기층 대중의 일반적 몰락과 함께 자기 집안의 운명 또한 역사의 뒤켠으로 밀려가는 데 예외일 수 없었던 수운 최제우의 눈에 위의 현실이 비켜갈 수 없었다. 그래서 최제우의 고민은 시작되었고, 고민 끝에 20살에 가출하여 10여 년 동안 온통 조선 천지를 기웃거려 보았으나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암울한 분위기만 다시 확인했을 뿐이었다[2]. 그러나 혼란한 틈을 타고 사회 일각에서 민중사상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班常차별을 논하지 않는 천주교가 차츰 교세를 확장해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였을 것이다.

수운 최제우는 뒤에 정리된 동학경전의 귀절에 드러나듯이 이즈음 민중사상과 천주교를 나름대로 섭렵하였음이 분명하다. 성리학의 신분차별적 사상에 익숙했던 유학적 지식으로서 수운 최제우에게 西學(=천주교)이 던진 사상적 충격은 대단했던 것 같고[3], 그리하여 수운 최제우는 나름대로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에 대한 대응과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사색과 구도의 길에 들어갔다.

이때 사회적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그는 뒤에 정리한 동학경전에 이렇게 담았다.

"또 근래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각각 제마음대로 생각[各自爲心]하여 天

---

2) <<천도교회사>> 초고, 제 1편 천통,<<동학사상자료집>> 1권에 수록, 391~392쪽

3) 서학이 최제우에게 미친 영향이 대단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는 ① 포덕문에 기록된 득도 때의 자세한 상황과 ② "斯人은 道를 서도라 칭하고 學을 天主라 하며 敎를 聖敎라 하니 이는 天時를 알고 天命을 받은 것이 아닐까"(논학문)라고 하여 서학이 천시와 천명을 받은 것으로 주목한 점과 ③ 또 그가 자신의 동학이 서학과 "운과 도는 같으되 이치가 다르다"(논학문)고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양자의 차이점을 굳이 밝혀야 할 정도로 서학과의 유사성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밖에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경전 다른 부분에도 자주 발견되는데, 이를테면 논학문에서 "서양사람은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道成立德] 끝내 조화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귀절중 서양의 도성입덕을 도수사에서 "무극대도 아닐런가 시호시호 그때오면 道成立德 아닐런가" 하여 자신의 무극대도 시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치시켜 놓고 있다.

理에 따르지 않고 天命을 돌보지 않으니 마음이 늘 송구스러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포덕문)

"서양은 싸우고 빼앗아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천하가 다 망하면 이 또한 脣亡齒寒의 근심이 어찌 없겠는가. 輔國安民의 계책을 어디에서 생각해낼까"(포덕문),

"처자산업 다버리고 팔도강산 다밟아서 인심풍속 살펴보니 무가내라 할길없네 우습다 세상사람 불고천명 아닐런가 … 아셨어라 팔도구경 다던지고 고향에나 돌아가서 백가시서 외어보세"(몽중노소문답가).

"아서라 이 세상은 堯舜之治라도 不足施요 孔孟之德이라도 不足言이라"(몽중노소문답가)

그리하여 1860년 4월 5일 이른바 수운 최제우 개인의 득도라는 형식으로 동학이 창도되었다. 동학 창도의 사상적 기초는 물론 유학(성리학)이었지만[4] 방황 하는 과정에서 섭렵한 민중사상과 서학이 상당 부분 차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그의 경전이 잘 설명하고 있다.

"뜻밖에 4월 초닷새 날 마음이 선듯하고 몸이 떨려 질병이라 하기에는 증세를 모르겠고 말로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즈음에 어디에서인지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 깜짝 놀라 일어나서 캐어 물으니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일러 上帝라고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였다. 그 까닭을 물으니 '나 또한 아무런 功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보내 이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면 西道(서학)로써 사람을 가르치오리까'하고 물으니 (상제가) '아니다. 나에게 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仙藥이요 그 모양은 太極이요 또 모양은 弓弓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사람들을 가르치면 너는 長生하여 덕을 온 천하에 퍼뜨리리라"[5](포덕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운이 上帝[6]라 하는 이상한 목소리에게 "西道(서학)로써 사람을 가르칠까"하는 반사적인 첫 물음이다. 이는 곧 서도에서 말하는 "구세주로

---

4) 교훈가에 보면 청소년기까지 최제우가 수학한 것은 유학임을 밝히고 있다.
"삼강을 법을 삼고 오륜에 참예해서 이십살 자라나니 성문거족 이내 집안"

5) 이 내용은 용담가와 안심가에도 실려 있음.

6) 이는 천주교에서 칭하는 하느님을 의미한다. 최제우는 천주교의 하느님을 다른 곳에서도 상제라 표현하고 있다. 즉 천주교를 비판하는 부분인 "천상에 상제님이 옥경대에 계시다고 보는듯이 말을 하니 음양이치 고사하고 허무지설 아닐런가"(도덕가)에서 천주교의 하느님이 상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 바로 자신(최제우)이 선택되었는가" 하는 수운의 반문인 것이며, 이는 최제우가 자신에게 사상적 충격으로 다가온 西道적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7]. 그리고 다음 상제의 대답에 주목한다면, 다만 서도적 구원과 내용이 수운에게로 넘어오면서 당시 조선의 기층 대중에게 익숙한 민중사상의 영부·선약·태극·궁궁·주문 등이 가미되어 조선의 정서에 알맞게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학의 창도과정이란, 수운이 가졌던 최초의 사회적 定向orientation으로서 유교(성리학)적 세계관이 당시 사회적 모순에 직면하여 민중사상과의 결합을 통해 확장된 의식을 가지면서 중국까지 침략당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학이 던진 종교적·사상적 충격 아래 서학과 유사하지만 민중사상의 내용을 풍부하게 수용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개인적 의식과 사회적 체험의 결합과정으로 정리된다.

이후 수운은 포교에 들어갔고, 포교과정에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차례로 만들어져 그 종교적·사상적 틀과 내용이 뚜렷해졌으며, 점차 하나의 종교와 사상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비록 서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東과 西의 구분을 시도하여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다… 운은 하나이고 도는 같으나 이치는 다르다"(논학문)고 논파한 대로 서학에 대응하는 뜻으로 자신의 종교를 동학으로 이름지었다.

2) 동경대전

수운에 의해 정리된 초기 동학사상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내용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동경대전은 다음의 몇가지 주요 한문 경전을 묶어서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제작 시점을 달리하면서 담고 있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 현재까지 간행된 영인본 자료와 논문, 교단측 교회사를 통해 제작시기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이들 자료간에는 경전 제작 시기에 대해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엄밀한 비교검토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들 자료간에 시기상의 오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작순서에 따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① 포덕문: 1861년(辛酉년) 봄에 제작(『초고』[8], 한글』[9], 동학사상'[10]에 의거).

---

7) 이것은 서양세력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서양사람은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道成立德] 끝내 조화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며 무기로 공격하면 그 앞에 당할 자가 없다고들 한다"(논학문). 여기서 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西道를 말할 것이고, 이 서도의 힘으로 서양 세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제우로 하여금 서도를 특별히 주목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8) 『초고』는 1930년 천도교 구파가 편찬한 것으로 판단되는 <<천도교회사>>초고를 말한다.

9) 『한글』은 동학연구원 편, 1991, <<한글동경대전>>, 자농.

내용: 용담가 교훈가 안심가에서 보여주는 교리를 성리학과 결합, 천명을 교인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 초보적인 유학(성리학) 인식, 무위이화, 득도의 상황, 천주공경, 보국안민

② 논학문: 1861년(辛酉년)말에 제작('동학사상'), 『약사』[11]는 신유년, 『한글』은 신유말인지 임술초인지 불명, 『초고』는 1862년 6월.

내용: 주문설명, 우주 음양오행, 인간론, 서학의 天主개념차용, 학적 구성을 보여줌, 교리문답형식

③ 수덕문: 『약사』에 1862년 임술 제작, 『초고』는 1862년 6월, '동학사상'에는 1862년 여름,

내용: 천지자연의 이치, 가문의 몰락사, 수도의 자세

④ 불연기연: 『약사』에 1863년 계해 제작,

내용: 사물의 생장발전소멸의 이치

⑤ 탄도유심급: 1863년 봄('동학사상', 『한글』), 『약사』는 1863년,

내용: 정심수도의 자세 강조, 조급함을 경계

2) 용담유사

용담유사 또한 아래의 한글 경전을 묶어 지칭하는 것이다. 용담유사에 대해서는 『말씀』[12]에 실린 계사간(1893년) 영인본이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이에 따라 내용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자료간에 시기상의 차이가 나타나 이를 참고적으로 밝히면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용담가: 1860년(庚申년)제작, 『말씀』에는 교훈가 안심가에 이어 3번째 수록

내용: 몰락한 집안과 불우한 자신의 이야기, 오만년 무극대도를 득도, 풍수신앙이 보임.

② 교훈가: 1860년(庚申년)제작. 『약사』에는 1861년(辛酉년)제작.

내용: 향당과 육친으로부터 박해와 수모, 신분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자각, 순환적 평등의식, 無爲而化와 지상신선, 신앙심 강조,

③ 안심가: 1860년(庚申년) 제작.

내용: 기층대중에 대한 포교용, 부적 불사약, 선풍도골, 서학비판, 척왜의식, 나라에 대한 문제에로 의식확산, 순환적 평등의식

④ 도수사: 『약사』·『말씀』·『주해』[13]는 861년(辛酉년)제작, 『초고』와 '동학사

---

10) '동학사상'은 石井壽夫, 1941, <교조 최제우에 있어서 동학사사의 역사적 전개>, <<歷史學硏究>>11권 1호(번역문은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100추위 편, 1991,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 여강출판사에 수록)

11) 『약사』는 천도교회사편찬위, 1981, <<천도교백년약사>>상, 미래문화사.

12) 『말씀』은 동경대전은 계미간(1883) 경주본, 용담유사는 계사간(1893)을 영인한 김경창·한길호 공편, 1980, <<하날님말씀>>, 복지문화사.

13) 『주해』는 동학연구원 편, 1991, <<주해해설 용담유사>>, 자농.

상'에는 신유년 12월 제작.

내용: 신앙위주로 덕을 닦도록 경계, 성경(誠敬)으로 수도하면 서양 사람이 이룬 道成立德을 우리도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 3년 후(1864년) 갑자년에 대한 예언, 三七자 주문의 효험.

⑤ 권학가: 『주해』는 1861년(辛酉년) 제작, 『말씀』과 『약사』에는 1862년 임술, 『초고』는 신유년 12월, '동학사상'에는 임술년 정월.

내용: 세상인심, 서양에 대한 위기의식, 一盛一衰의 시운, 성경수도.

⑥ 몽중노소문답가: 『말씀』과 '동학사상'에는 1861년(辛酉년)제작, '동학사상'은 신유년 6월이라고 확정적으로 밝힘, 『초고』는 1862년(壬戌년) 6월, 『주해』는 1862년.

내용: 북경함락에 따른 조선인의 피난사상 반영, 민중사상, 민심이반을 반영, 정감록적 우화체로 서술, 무극대도의 후천개벽 시기 암시(상원갑-->1864년).

⑦ 도덕가: 『말씀』에는 1862년(壬戌년), '동학사상'에는 임술년 6월 이후, 『초고』는 1862년 6월, 『주해』는 1863년(癸亥).

내용: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과 성경 수도, 문벌세가에 대한 비판.

⑧ 흥비가: 『초고』는 1863년(癸亥년) 8월, 『주해』와 『약사』와 『말씀』에는 1863년 제작.

내용: 修德할 때 초조함을 경계, 무극대도의 후천개벽이 얼마 남지않았음을 암시

⑨ 검가: 『초고』와 '동학사상'과 『주해』(『주해』는 검결이라고함)에는 1860년 경신 제작, 『약사』는 1861년,

내용: 다시 없는 5만년 절호의 시운을 노래

이상 포교과정에서 차례로 제작된 동학경전을 통해 살펴보면, 수운 최제우의 의식 속에 포섭되어 있거나 계속 자신의 주요 주제로 거론했던 것은 ① 성리학과 그 비판 ② 가문과 수운 최제우 자신의 몰락에서 유래한 현실비판 ③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위기의식(보국안민) ④ 순환적 천지자연의 이치(무위이화) ⑤ 정감록적 민중사상 ⑥ 서학과 그에 대한 차별의식 ⑦ 성경 위주의 정심수도(종교적 수도 강조) ⑧ 5만년 운수의 무극대도, 후천개벽 제시 등으로 압축·정리할 수 있다.

4. 동학의 주요 내용과 지향

그러면 수운은 동학을 창도하는데 어떤 사상들을 수용하였으며, 거기에 기초하여 성립한 동학의 주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경전 각 귀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1) 도가적 무위이화

우선 그는 유학적 소양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당시 세상을 유학의 가르침이나 윤리만으로는 바로 잡을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예컨대 "유도불도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다"(교훈가)라든가 "아서라 이 세상은 堯舜之治라도 不足施요 孔孟之德이라도 不足言이라"(몽중노소문답가) 라는 경천가사에서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천지운행에 관련된 一動一靜, 一盛一敗가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天道에 눈을 돌렸다[14]. 이것은 곧 논학문에서 "천도로서 무왕불복지리(無往不復之理)를 받았다"고 말하여 자신의 중심사상이 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어 劒歌에서 "時乎時乎 이내시호 不再來之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5만년지 시호로다" 하여 지금이 5만년의 운수로 새로운 세상(= 후천)이 열린다는 확신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후천은 개개인이 억지로 힘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도의 운행과 같이 無爲而化의 자연적 조화에 의해 온다고 보았다[15]. 무위이화[16]는 유가의 有爲사상에 대립하는 도가의 무위자연 순응사상에서 시사받은 것으로 자연(= 천도)의 운행에 부합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현세적 지상신선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장생불사하여 세속을 떠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도가적 신선사상이 있었다. 교훈가에 보면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 될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도가적 신선사상을 수용한 흔적이며 다만 현세 저쪽의 신선이 아니라 입도와 동시에 誠敬을 다해 정심수도하면[17] 현세에서 신선이 된다는 무척 현실적인 신선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성껏 장생의 주문을 외면서 불사의 仙藥(靈符)을 먹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仙分이 있는 사람은 안심가에서 "그럭저럭 먹은 符가 수백장이 되었더라 칠팔삭 지내나니 가는 몸이 굵어지고 검던 낯이 희어지네 어화 세상사람들아 선풍도골 내아닌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신명 좋을시고 불로불사

---

14)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따르면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에 순종하는 것이니라"(포덕문)
"시운을 의논해도 일성일쇠 아닐런가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권학가)

15) "우리 도는 無爲而化이니 마음을 지키고 氣를 바로하고 性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히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논학문).

16) 수운의 무위이화 개념은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無爲이면 백성들이 스스로 化하고, 내가 好靜이면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내가 無事면 백성들이 스스로 부를 누리고, 내가 無欲이면 백성들이 스스로 소박하게 된다"(<<도덕경>>57장),
"도는 항상 無爲이면서 無不爲이다"(<<도덕경>>37장),
"有爲者는 패하고 집착자는 잃는다. 그러므로 聖人은 無爲로써 패하지 않고, 無執으로써 잃지 않는다"(<<도덕경>>64장)고 하는 노자의 무위개념이나,
"그의 덕은 만물을 혼연일체로 한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다스려 달래도 누가 허덕이며 천하의 일로 관심사를 삼겠는가.…그는 보잘 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요순 같은 자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것이니, 이런 인물이 어찌 세속의 일에 관계하려 하겠는가"(<<장자>>내편 소요유)라고 하는 장자의 무위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17) "성경이자 지켜내어 차차차차 닦아내면 무극대도 아닐런가"(도수사)

하단말가" 하는 것처럼 지상신선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로 이 땅에서 신선세계를 구현하려는 수운의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이 내세관을 주장하는 서학과는 달리 동학의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특징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구도 인정할 수 있듯이 지상신선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비현실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동학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하나의 개념 속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점이 또한 기층대중들과 만나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으니, 즉 지상신선에 대한 기층 대중들의 몰입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논리적 판단에 따라 지상신선이 되고자 했기보다는 현실적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염원에서 가상적이고 자기 최면적인 지상신선을 꿈꾸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상신선은 고통과 모순에 가득찬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로되 이를 변혁시켜 실현되는 이른바 '해방된 민중적 세계'에서 추구되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3) 정감록적 도참사상과 무극대도

다음 그는 당시 기층민중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던 민중사상 중의 하나인 도참사상을 받아들였다. '몽중노소문답가'에서 이러한 도참사상적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 "곤륜산 일지맥의 조선국 금강산이 … 천하승지 아닐런가 삼각산 한양도읍 사백년 지낸 후에 하원갑 이 세상 …"으로 시작되는 그 첫부분은 이심, 이연 형제가 정감과 함께 금강산에 올라 조선의 미래를 예언하는 정감록 감결의 첫부분과 흡사하다. 이어 임진왜란 때 살아남는 비결은 "利在松松"이며 가산 정주 서적(西賊: 관서농민전쟁) 때는 "利在家家"였지만 지금 혼란한 시기에 살아남는 비결은 "利在弓弓"뿐이라 하였다. 이재궁궁은 정감록적 예언적 비기로서 기층대중의 피난의식과 이상세계에의 동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운 최제우는 이러한 도참사상이 일시적 방편이 될 뿐이라고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매관매작 세도자도 일심은 궁궁이요 전곡쌓인 부첨지도 일심은 궁궁이요 유리걸식 패가자도 일심은 궁궁이라 풍편에 뜨인자도 혹은 궁궁촌 찾아가고 혹은 만첩산중 들어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各自爲心 하는 말이 내옳고 네그르지 시비분분 하는 말이 日日時時 그뿐일세"라고 하여 궁궁을 찾는 뜻이 모두가 제마음대로 하려는 '各自爲心'의 이기심을 충족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수운이 제시한 것은 그러한 '각자위심'의 상태가 아닌 무극대도의 후천개벽이 곧 열려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된다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1864년 甲子년) 호시절에 만고없는 무극대도 이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해서 억조창생 많은 백성 태평곡을 불구에 볼 것이니 이세상 무극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몽중노소문답가)라고 하여 무극대도가 실현될 시기까지 제시하

였고, 교인에게는 "조갈은 잠시로다 생각코 생각하소"(흥비가)라고 하여 태평곡을 볼 날이 멀지 않았으니 초조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수도에만 열중하게 하였다. 일종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언한 셈이었다[18].

4) 치병구복

기층 대중에게 어쩌면 가장 두려운 존재는 언제 오는지 모르게 와서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의 마수가 아니었을까. 당시 전염병이 한번 돌면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한 마을을 텅비게 만들었다. 그래서 기층민중은 언제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빌고 빌었다. 최제우는 이런 치병염원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체계 속으로 끌어들였다. 즉 "나에게 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오 … 그 형태는 궁궁이니 … 사람들의 질병을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포덕문)에서 부적 즉, 선약으로써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전형적인 치병구복의 민간신앙의 한 모습을 이어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천주교에서도 신도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시약소를 설치하였는데, 최제우도 이와 유사하게 부적을 통해 기층 대중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곤 했던 것이다.

여기에다 "8도 불전에 시주하고 지성으로 山祭해서 백배축원 앙천하며 주소간비는 날이 지성감천 아닐런가"(몽중노소문답가) 하여 불교와 어울어진 기복신앙까지도 수운은 놓치지 않았다.

물론 이런 비현실적이고 신비적인 내용은 기층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단순한 방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동학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핵심적인 한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야 말로 어쩌면 기층 대중들과 일체감을 형성시켜줄 가장 확실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학은 이를 확대시켜 洋學을 물리치고 東學을 수호하는데까지 연장시키고 있었다. 경상감사 서헌순의 보고에 의하면 "최제우가……敬天順天의 마음으로써 '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萬事宜'란 13자 주문을 짓고 동학이라 이름한 것은 동국의 뜻을 딴 것인데, 洋學은 陰이고 東學은 陽이라. 양으로써 음을 제압하려면 동학의 주문을 늘 외면된다."[19]라고 하였다. 서양세력과 서학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주문 외는 행위를 제시하였고, 이는 동학의 대사회적 실천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것이다.

5) 동학사상의 양대 체계

---

18) 이런 최후의 심판의 날을 암시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무극한 이내도는 삼년불성 되게 되면 그 아니 헛말인가 급급한 제군들은 인사는 아니닦고 천명을 바라오니 졸부귀 불상이라" "구구자자 살펴내어 정심수도 하여두면 춘삼월 호시절에 다시볼까"(도수사);
"구구자자 살펴내어 역력히 외어내어 춘삼월 호시절에 놀고보고 먹고보세"(권학가).
19) <<일성록>> 고종 1년 2월 29일조.

이처럼 동학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서학의 충격 아래 민중사상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용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 종교이며 사회사상이었다. 이러한 동학의 사상적 구조는 두 개의 큰 골격으로 체계화된다.

첫째는 氣一元論적 우주관 속에서 한울(하날)님을 바로 자기와 일체화시킨 인간관 제시이다. 이때 氣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理氣관계의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기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에서는 虛靈蒼蒼하여 그 본질을 쉽게 알기 힘드나 한편으로는 형태가 있는 듯하고 들을 수 있는 듯하여 인간과 교호할 수 있는 至氣의 상태로서 비인격적 인간화의 전단계로 파악되는 기이다. 이런 기론에 바탕한 인간관은 그 지극한 기를 자신의 정성에 따라 내 몸속에 영원히 모실 수 있는(=시천주), 그리하여 한울님과 하나가 되는 자연·인간 합일 사상(-->天人一如, 天人合…)으로서 이른바 事人如天을 거쳐 人乃天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기의 모습이었다.

둘째는 무위이화의 조화 속에서 천도운행에 따른 선후천 순환운동론 확립이다. 무위이화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리하여 그 조화가 이미 천도로써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조화정). 천도는 인간이 바꿀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천도에 순응할 때 가장 조화롭고 정의로운 인간사회가 구현된다. 즉 天時(=節候)와 인간의 행위가 서로 일치될 때 가장 풍족한 결실을 이룩할 수 있다는 농경사회의 전통적 자연순응사상[20]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동학은 동양적 사유체계가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철학적 전제로 삼은 것 같고, 이에 따라 당시 조선 사회에 전파된 儒·佛·仙을 합일하려는 사상적 지향이 발견된다[21].

그런데 이러한 양대 골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서로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최제우는 이를 하나의 呪文 속에서 통일적으로 제시하였다. 곧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21자의 주문 속에 일원적으로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최제우는 누구나 동학에 입도하여 誠·敬·信을 다해 이 주문만 외운다면 자연·인간의 합일을 통해 투쟁과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무극대도의 후천이 어느덧 찾아와 지상선경을 체험하고 향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동학의 정치·사회적 함의

사회적 변동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위기의식이 확대되던 19세기 중엽의 시대적

---

20) 이 범주에는 儒家와 道家 사상 모두 포함된다. 유가와 도가는 크게 보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천도와 천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현하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 갈라졌다. 이후 유가사상은 秦·漢을 거치면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정착하였고, 도가는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때로는 유가가 지배하는 사회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21) "吾道는 원래 儒도 아니며 佛도 아니며 仙도 아니니라. 그러나 오도는 유불선 합일이니라. 즉 천도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한 부분이니라." 이돈화 편, 1933, <<천도교창건사>> 1편, 천도교중앙종리원, 47쪽.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동학이 창도된 이상, 종교로서 내적인 구원의 영역과 함께 외적으로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사회적 지향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동학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다음 몇가지 주제를 축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1) 반봉건과 수심정기

수운은 당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찾아온 집안의 몰락과 국가·사회의 이완을 회적 혼란으로 인식하여(--> 一亂) 이 원인을 유학적 도덕질서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찾았고[22], 기에 서양세력과 서학이 침략해와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23]. 이에 따라 사람들은 '불고천명'하고 '각자위심'하여 세상은 더욱 '효박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一亂 상황에 대해 최제우는 "아서라 이 세상은 堯舜之治라도 不足施요 孔孟之德이라도 不足言이라"(몽중노소문답가) 하여 유학의 다스림과 덕으로도 부족한 비상한 시국임을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개신유학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한, 도덕적질서를 회복하고 守心正氣를 통해 더욱 내면적 윤리화의 방향이었다.

"강산구경 다 던지고 인심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있지마는 인심풍속 괴이하다."(권학가)

"수심정기 하여 내어 인의예지 지켜두고 군자말씀 본받아서 성경이자 지켜내어 선왕고례 잃잖으니 그 어찌 혐의되며 세간 오륜 밝은 법은 인성지강으로서 잃지 말자"(도덕가)

"인의예지는 옛 성인이 가르친 것이나 수심정기는 내가 새로 정한 것이다."(수덕문)

그래서 그는 도덕질서가 회복된 바람직한 미래상(--> 一治)과 거기에 도달하기

---

22) "평생에 하는 근심 효박한 이세상에 君不君 臣不臣과 父不父 子不子를 주소간 탄식하니 울울한 그회포는 흉중에 가득하되 아는 사람 전혀 없어"(몽중노소문답가);
"강산구경 다 던지고 인심풍속 살펴보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있지마는 인심풍속 괴이하다"(권학가)
"최제우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워진 된 원인을 ……조선 사회의 내적인 면에서, 즉 윤리의 퇴폐상에서 찾고 있다. 그러한 윤리의 퇴폐상은 현상적으로는 유교도덕의 무력화·형해화로 드러나고 있었다"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0쪽.
23) "무릇 경신년 4월에 천하가 분란하고 민심이 효박하여 향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중국이 소멸하면 어찌 입술이 상하여 이가 시린 근심이 없겠는가"(논학문).

위한 방안으로서 수심정기하는 구체적 방법을 자신의 경전가사를 통해 제시하였다. 즉 三七자 주문을 외거나 부적을 먹으며 개별적으로 지상신선과 같은 현실이탈을 희구하고 있는 동안 무위이화적 천도의 순환에 따라 혼란기의 하원갑이 지나가고 태평성세의 상원갑이 찾아오면 모두 태평곡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운이 사회 혼란의 징표로서 본 '각자위심'의 상태는 오히려 봉건사회의 제약을 무너뜨리면서 각자 자유로운 발전을 이루려는 근대지향적 사회의 특유한 현상으로서 봉건적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특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근대성의 발로로 생각된다.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것은 기층 대중의 염원을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가운데 서학의 충격을 수용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동학은 어디까지나 종교였고 종교사상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사회를 혼란으로 보고 이를 부정·지양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반봉건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는 동학이 역사의식을 일정하게 담지하는 사회사상이면서 개인의 구원을 지향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성향이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동학을 부귀빈천이 대별되는 당시 사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하여 당시 일부의 기층 대중이 동학에 입도하였고, 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봉준과 같은 사회세력 또한 동학을 用武地[24]로서 인정하여 입도하였다.

2) 반외세와 화이적 세계관

동학이 종교적 틀과 내용이 갖추어지던 시기는 서양세력이 중국을 침략하여 위기감이 크게 조성되고 서학이 조선에 들어와 계속 신도수를 늘려가던 때였다. 수운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자신의 경전에 담았다.

"경신년에 이르러 듣기로 서양사람은 천주의 뜻으로 부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천하를 공격하여 교당을 세우고 교를 퍼뜨리므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을 가졌다."(포덕문)

"서양은 싸우고 빼앗아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천하가 다

24) "그가(전봉준--인용자) 자가의 의귀소요 용무지(用武地)임을 각오하였다. 그래서 그는 곧 그의(동학--인용자) 당에 참가하여 제 2세 교주 최해월의 문하에서 한 반석 같은 도제가 되면서 그의 당우에 대하여 자기의 주의를 더욱 선전하였나니" 황의돈, 1922, <민중적규호의 제일성인 갑오의 혁신운동>, <<개벽>> 4월~5월호,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100추위 편, 1991, 앞의 책, 416쪽에 수록.

김상기도 이런 관점을 이어받아 "전봉준은 경인년(1890년)에 이르러 그의 用武之地로서 동학교문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학에 입도하였다고 보았다. 김상기, 1947, <<동학과 동학란>>, 대성출판사, 78쪽.

망하면 이 또한 脣亡齒寒의 근심이 어찌 없겠는가. 보국안민의 계책을 어디에서 생각해낼까"(포덕문)

"무릇 경신년 4월에 천하가 분란하고 민심이 효박하여 향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또 괴이한 풍설이 세상에 크게 뒤흔들기로 서양사람은 도성입덕하여 끝내 그 조화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며 무기로 공격하면 그 앞에 당할 자가 없다고들 하니 중국이 소멸하면 어찌 脣亡齒寒의 근심이 없겠는가"(논학문).

이에 따라 조선을 포함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가 '상해지수' 혹은 '괴질운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중국이 망하면 순망치한의 근심이 없겠느냐'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로 파악하였다.

"개같은 왜적놈을 하날님께 조화받아 일야에 멸하고서 전지무궁 하여놓고 大報壇에 맹세하고 漢[25]의 수 갚아보세"(안심가),

그러나 동학의 특징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는데, 척사위정을 앞세운 당시 대표적 유생으로서 화서 이항노의 철학적 구호인 '尊中華攘夷狄'[26]과는 달리 좀더 대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敬天順天의 마음으로써 '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萬事宜'란 13자 주문을 짓고 동학이라 이름한 것은 동국의 뜻을 딴 것인데, 洋學은 陰이고 東學은 陽이라. 양으로써 음을 제압하려면 동학의 주문을 늘 외면된다.……최제우의 아들 인득이 항상 木刀로써 춤을 추고 검가를 불렀다…… 최제우가 말하기를 '양적은 火攻을 잘함으로 甲兵으로 대적할 바가 아니다. 오직 동학만이 그들을 섬멸할 수 있다.'……'나무의 예리함이 쇠를 이긴다. 양인은 눈이 어두워 보검으로 인식한다. 비록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가 있어도 감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였다."[27]

즉 최제우로서는 서양세력이 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조선을 직접 침략해서라기보다는 임진년의 은혜를 베푼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적 천하의 일부로서 조선사회도 위기를 느끼고 서양의 침략에 대비해야 했다. 그러

---

25) 대보단은 임진왜란 때 明이 원군을 보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명의 태조·신종·의종을 제사지내던 사당이다. 그렇다면 뒤 이은 漢은 漢族의 나라 明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한의 원수를 갚자'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의식의 연장선에서 서양세력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는 당시 중국의 원수를 갚자는 뜻이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이것을 汗夷, 漢夷로 보아 병자호란을 일으킨 淸으로 해석을 잘못 하기도 한다

26) "중국을 높이고 이적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은 천지가 다 될 때까지 대원칙이요…… 이적과 중화의 분별이 있는 것은 천하의 대세이다……정통에는 夷와 夏가 있으니 이것이 천지사이의 최대의 구분이다." <<華西集>> 雅言 권 10, <존중화>

27) 각주 번호 19)와 동일.

나 최제우는 서양세력에 대해서 "도성입덕하여 끝내 그 조화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며 무기로 공격하면 그 앞에 당할 자가 없다"라고 파악하고 있듯이 서양의 문화적·군사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바로 이점에서 최제우의 서양관은 서양을 '禽獸의 나라'로 보는 전통적 유생 보다 현실적으로 한 발 앞선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서양관에 따라 알맞은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서양의 우월성을 제압하려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서는 불가능했으므로 자연히 동양의 우월성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최제우가 보기에 이는 동학만이 가능했고, 그 방법은 동학주문을 외거나 목검을 쥐고 검가를 부르면서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서양의 물리적 수단을 동학의 정신적 측면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 보국안민

비록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반봉건과 반외세의 정치·사회적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輔國安民이다. 보국안민은 동학의 반봉건·반외세의 마지막 보루인 셈인데 다음의 경전가사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자.

"서양은 싸우고 빼앗아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천하가 다 망하면 이 또한 脣亡齒寒의 근심이 어찌 없겠는가. 輔國安民의 계책을 어디에서 생각해낼까"(포덕문)

"일세상 저인물이 도탄중 아닐런가 함지사지 출생들아 보국안민 어찌할꼬"(권학가)

혼란에 빠진 나라와 도탄 중의 백성들을 구제할 방도로서 제시된 것이 보국안민이었다. 그런데 이 보국안민은 인위적인 수단에 의해 실현되기 보다는 안심가의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요순성세 다시와서 국태민안 되지마는"에서 처럼 후천개벽이 도래하여야 요순성세와 국태민안으로서 구현된다고 하였다.

즉 동학의 보국안민은 당시 사회에 대한 역사의식에서 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영역으로 경사됨에 따라 봉건사회를 극복할 구체적인 국가·정치체제의 구상을 내포할 수 없었다. 이런 체제 구상의 공동성은 2세 교주 해월 최시형의 단계에서도 극복되지 못하였다.

4) 윤리적 측면과 정치·사회운동

수운 최제우를 이은 2대 교주인 최시형의 단계로 오면 수양과 윤리도덕을 앞세우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시천주'라는 개념이 '養天主'[28]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수양적인 측면이 강조되는데, 이후 여성들에 대한 수도원칙과 교인의 실천윤리를 정한 '內修道文', 10개조 윤리' 등이 나타난다. 최시형의 단계는 종교적 수양의 강조와 실천윤리의 확립, 그리고 일반 포교에 더 중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불완전하였지만 현실적 모순관계에 대응하면서 창립된 초기(수운 최제우 단계) 동학이 점차 종교적 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드러나는 성격전환이라 하겠다.

이러한 수양위주의 동학교단이 정치·사회운동과 관련을 맺게되는 것은 1892년 7월부터이다. 서인주가 해월 최시형에게 찾아가 수운 최제우의 伸寃문제를 상의한 후, 공주집회와 삼례집회를 서인주의 주도로 개최하고, 1893년 한양에서 복합상소와 척왜양의 괘서운동을 벌이면서 정치·사회적 운동은 점차 고조되어갔다.

6. 맺음말

동학은 당시 여러 민간신앙적 요소와 사회사상들을 수용하여 창립된 종교이며 사회사상이었다. 동학은 이 과정에서 해체되고 있던 조선사회의 지양점과 서학에서 보여주는 서구적인 세계를 종합하여 반봉건·반외세의 새로운 사회로의 전망을 일정하게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전망은 종교적 차원에 머물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치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동학 속에 적극적으로 포섭될 필요가 없었다.

동학이 이러한 종교적·사상적 특성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동학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하나의 사상이 가지는 발생적 의미와 그것을 누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당시 사회변혁세력이 동학에 들어가 동학을 정치·사회운동으로 이끌어갔던 점을 놓칠 수 없고, 이는 역시 동학사상 속에 정치·사회운동으로서의 씨앗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수운 최제우가 당시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기층 대중적 입장을 반영하는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사회사상을 구축하고 종교적으로 기층 대중과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려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에 부과된 반봉건·반외세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응하여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려한 수운의 업적일 것이며, 나아가 사람의 존재를 하늘처럼 부각시킨 점에서 근대사회의 사상적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끝-

28) <<천도교서>>, 제 2편, <<아세아연구>>, 5권 12호, 221쪽

동학혁명군 12개조 폐정개혁안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동학행진곡

1. 정의와자유— 위하여 피흘린위 대한 역—사
2. 우리는새세상 위하여 한울이보 낸 용 사—다

1. 창생의힘 우리광명은 동학뿐이였었—네
2. 나가자우리사명—은 보국안민광제창생

1. 그깃발아래우리는 얼마나힘차게싸웠나
2. 선열이흘린거룩한 그피를우리는받—자

후렴

들어라개벽의깃발—을 용감한우리— 용사—야

빛나는우리역사를 등에—지고나가—자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 기념관주소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76-2(풍남동 은행나무)
▪ 전 화 번 호 : 0652 - 231 - 3219
▪ 기념관사용 소개

1 각 사회단체 및 학교등 2층 상설전시설 무료 개방
2 각 사회단체 및 학술단체등 1층 강당 유료 대여
3 동학 · 천도교에 대한 전화문의 및 방문 상담